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1804-02

품목: 신선 배(Fresh pear)

국가: 브라질(Brazil)

Contents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4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6
2. 농산물 현황	9
3. 수출입 및 생산통계	14
II. 시장 트렌드	21
1. 정책 관련 동향	23
2. 신선식품 시장 트렌드	24
3. K-Food 소비 트렌드	25
III. 통관 및 제도	28
1. 통관 및 검역	31
2. 인증정보	38
3. 라벨링	38
4. 위생요건	41

IV. 경쟁제품	42
1. 경쟁제품 선정	43
2. 경쟁제품 분석	43
V. 경쟁사	48
1. 경쟁제품 선정	49
2. 경쟁제품 분석	49
VI. 유통채널	53
1. 유통채널 개황	54
2. 유통채널 구조	55
3. 주요 유통채널 현황 및 분석	58
VI. [심층] 유기농 제품 및 유통시장	62
1. 유기농 시장 현황	63
2. 유기농 제품 인증	66
3. 유기농 제품 유통채널	67
3. 시사점	69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2. 식품 산업현황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브라질 국가 개요

세계 5위의 광활한 국토 면적과 약 2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남미 최대시장. 백인(47.7%), 몰라토(흑백 혼혈)(43.1%), 흑인(7.6%), 아시안(1.2%), 원주민(0.4%)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여러 나라의 문화가 혼합되어 브라질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음.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를 통해 온대작물부터 열대작물까지 동시에 생산이 이루어지며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 중 하나임.

2001년 골드만삭스 그룹은 브라질을 풍부한 지하자원과 거대한 영토 및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흥경제국(BRICs) 중 하나로 지명하며 2010년대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

그러나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유치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와 지우마 前 대통령의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인해 2015~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 추세에 있음.

주요 정보

- ▶ 국명: 브라질 연방 공화국
(Republica Federatva do Brasil)
- ▶ 수도: 브라질리아
- ▶ 대통령: 미세우 테메르(Michel Tmer)
(지우마 호세프 前 대통령 탄핵 이후
잔여임기 수행 중)
- ▶ 인구:
 - 2억 770만 명(2017)
- ▶ 민족: 백인(47.7%), 몰라토¹⁾(43.1%),
흑인(7.6%), 아시안(1.2%), 원주민(0.4%)
- ▶ 면적: 8,516천 km²(한반도의 38배)
 - 26개의 주와 1개의 연방구로 구성
 - 총 5개 지역으로 구분
- ▶ 공식어: 포르투갈어
- ▶ 주요 도시: 상파울루, 리오데자네이루,
쿠리치바, 브라질리아 등
- ▶ GDP: 20,809억 US달러(2017)
- ▶ 1인당 GDP: 10,020 US달러(2017)
- ▶ 경제성장률: 0.7%(2017)
- ▶ 화폐단위: 헤알(Real, BRL)
- ▶ 인터넷 사용률: 60%(2017)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Brazil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Brazil: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1) 흑인, 백인 혼혈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국가 위험등급 및 전망²⁾

	등급	등급전망
	DB4	안정적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Brazil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 주요 전망

구분	세부내용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혁을 실시할 경우 매력적인 투자상대국이 될 것으로 기대 - 장기적 관점에서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산층 확대에 의한 인적 자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막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기대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보호 무역주의, 높은 세금 체계, 기타 사회 인프라 부족과 같은 높은 브라질 코스트(Brazilian cost)³⁾를 지니고 있음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Brazil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2) D&B의 'DB' 위험 지표는 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국가 간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요인들이 2년의 기간에 걸쳐 수출 결제 및 투자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위험을 나타냄. 'DB' 위험 지표는 국가별 위험 카테고리로서 다음의 4가지 종합 지수로 구성됨. ▲ 정치위험, ▲ 상업위험, ▲ 거시경제위험, ▲ 외부위험. 첫째, 정치위험은 국내외 안보 상황, 정책 역량 및 일관성, 국가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둘째, 상업위험은 계약의 신성함, 사법능력, 규제투명성, 체제의 부패정도, 비즈니스 환경이 상업 거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셋째, 거시경제위험은 물가 상승률, 재정적자, 통화공급증가,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즈니스 기회에 상응하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거시경제 요인을 포함함. 넷째, 외부위험은 경상 수지, 자본 흐름, 외환 보유고, 대외채무 규모, 무역 및 대외투자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포함.

자료: D&B Country Risk Indicator, Dun & Bradstreet

3) 흔히 브라질 시장에 진입해 활동하는 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의미하지만, 법·제도의 미비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행태를 의미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16년 8월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인한 정·재계 혼란이 다소 안정화되고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친시장 성향의 테메르 정권 출범 이후 대규모 민영화 및 개방정책 추진, FTA 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인해 환율은 최근 12개월 동안 1달러당 3.10~3.30헤알 수준으로 안정세 유지
 - 2017년 1달러당 3.0~3.5헤알 수준의 환율은 대외개방정책 및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분석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경상수지	-3.3	-1.3	-0.5	-1.5	-1.4	-1.6	-1.8	-2.2
부채상환비율	-10.3	-9.0	-8.0	-7.0	-5.1	-5.5	-5.0	-4.4
물가상승률	9.0	8.7	3.4	3.6	4.2	4.1	4.1	4.0
경제성장률	-3.8	-3.6	1.0	2.7	2.5	2.4	2.5	2.5
실업률	6.8	12.0	11.9	10.4	9.0	7.5	7.0	6.5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Brazil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 무역통상 환경

- 인구 2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최대 시장으로 남미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
 - 2017년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큰 510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
- 지난 3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하향조정한 6.5%로 인하
 - 브라질 헤알화는 미국 달러대비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1달러당 3.4헤알보다 다소 하락한 3.32헤알 수준
 - 브라질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이며 2018년 3월 23일 기준 약 3,375.7억 달러로 집계
- 2016년 8월 지우마 前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테메르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의 대외경제 노선을 선택(다른 국가와의 FTA협상 발표)

- 노동법개혁, 연금개혁 등 친시장 성향의 정책에 따라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 남미경제공동시장(MERCOSUR)은 2017년 멕시코와 FTA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EU와도 협상 추진 중
- 한국과는 2017년 3월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했으며, 2017년 8월 관세 감면 품목리스트 작성 단계까지 진행

□ 위험 및 기회 요소

구 분	세 부 내 용
단기 경제전망	<p>거시경제 지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월 연평균 산업 생산량은 지난해 12월 2.4%보다 다소 오른 5.7% 기록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업률 감소에 따라 가계소비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 슈퍼마켓, 식품, 음료 및 담배 판매로 구성된 소매 판매량 지수는 지난 1월 98.8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 증가 • 기준금리 인하, 실질임금 상승, 농산물 수확량 증가, stronger commodity prices 등의 이슈로 인해 차후 3분기 실질 GDP 역시 금년도 예상치 2.7%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장기 경제전망	<p>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 의 완만한 성장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와 투자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회복세에 들어선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금개혁 단행 시 공공지출 감축으로 인해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 ▶ 민영화에 따른 FD⁴⁾ 증가 예상 •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국유자산 매각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 • 민영화가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일회성)
정치 불안 위험	<p>차기 대선정국 안갯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룰라 前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2018년 대선 전망 불투명 • 지난 4월 7일 룰라 前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수감됨에 따라 2018년 대선후보에서 제외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Brazil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4)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외국인 직접 투자

2. 농산물 현황

1) 신선과일 현황 및 동향

□ 주요 품목별 생산현황

-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수출국으로 총 국가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농산물 재배 면적이 넓고 국토 전체가 다양한 기후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
 -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등 열대과일이 다수를 차지하며, 온대기후인 남부지방을 통해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생산
 - 세계 최대의 오렌지 농축과즙 생산국이며 주요 생산 신선농산물로는 바나나, 토마토, 수박, 망고 등 약 300여 종의 다품종 과일 생산
- 2016년 기준 브라질 내 과일 총 생산량은 약 3,900만 톤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
 - 바나나는 브라질 전역에서 거장 널리 재배되는 과일이며 국내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10년간 수출 둔화
 - 대량생산되는 과일로는 파인애플과 사과가 있으며 두 품목 모두 통상적으로 생산량의 10% 미만을 수출하고 대부분은 국내시장에서 소비
 - 브라질 내 배 생산량은 연간 약 2만 톤 수준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 작은 규모

표 1.2 주요 신선과일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오렌지	18,013	17,550	16,928	16,940	17,251	86,681
바나나	6,902	6,892	6,954	6,849	6,764	34,362
파인애플	2,547	2,484	2,646	2,700	2,695	13,073
수박	2,080	2,164	2,171	2,120	2,090	10,624
캐슈애플	1,805	1,805	1,743	1,740	1,775	8,868
파파야	1,518	1,583	1,603	1,481	1,425	7,610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1,521	1,513	1,491	1,400	1,417	7,343
포도	1,515	1,440	1,454	1,497	984	6,890
사과	1,340	1,231	1,378	1,265	1,049	6,264
배	22	22	19	21	15	99
기타	4180	4,170	4,141	4,109	4,220	20,819
총계	41,442	40,853	40,531	40,124	39,686	202,634

자료: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단위면적당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주요 과일의 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

- o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유기농 농산물 생산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져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과일을 재배하는 가축농에 대해 국가 주도의 보조정책 확대

□ 지역별 생산 현황

그림 1.1 브라질 5대 권역



자료: Google

지방	주(州)
북부지방 (Norte)	호라이마(Roraima), 아마파(Amapa), 아마조나스(Amazonas), 파라(Para), 토칸칭스(Tocantins), 아크리(Acre), 혼도니아(Rondonia)
북동부 지방 (Nordeste)	마라냥(Maranhao), 피아우이(Piaui), 세아라(Ceara), 히우그란지두노르치(Rio Grade do Norte), 파라이바(Paraiba), 페르남부크(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세르지피(Sergipe), 바이아(Bahia)
중서부 지방 (Centro-Oeste)	마투그로수(Mato Grosso), 고이아(Goias), 브라질리아-연방구(Distrito Federal Brasilia), 마토그로수두술(Mato Grooso do Sul)
남동부 지방 (Sudeste)	미나제라이스(Minas Gerais), 이스피리투산투스(Esprito Sant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ao Paulo)
남부 지방 (Sul)	파라나(Parana),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 o 브라질은 크게 5대 권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별 기후환경에 따라 다른 농산물 생산 양상을 보임

- 영토가 광대해 열대, 아열대, 온대의 다양한 기후환경이 공존해 온대작물부터 열대 작물까지 동시에 생산 가능
 -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경우 열대작물 재배가 가능한 연중 고온다습기후
 - 북동부 지역의 경우 수출 핵심 상품인 코코아, 열대과일, 임산물 생산
 - 남동부와 남부의 경우 각각 아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를 띠며 토양이 비옥하여 집약적 경작 가능
 - 남부지역은 대두, 쌀, 옥수수 등 곡물 및 채소 생산

□ 신선과일 소비전망

- 브라질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어 따라 식품을 비롯한 전 품목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10월 대선 이후 실업률 개선을 통해 내수 소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브라질 신선과일 시장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2%의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약 1,9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바나나, 오렌지류 두 품목이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표 1.5 연간 과일 품목별 예상 판매량

(단위: 천 톤)

No	품목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1	바나나	6,448.7	6,517.3	6,709.9	6,867.6	7,035.9	39,971.9
2	오렌지류	2,829.2	2870.5	2,915.6	2,962.2	3,011.1	15,380.1
3	파인애플	867.5	886.0	900.4	912.5	923.5	5,331.7
4	사과	825.3	857.4	873.9	880.9	886.6	5,163.8
5	포도	765.8	778.4	790.0	798.7	806.3	4,686.0
6	레몬 및 라임	551.3	559.6	567.7	575.2	582.0	3,378.7
6	복숭아	291.2	294.6	297.5	299.9	303.9	1,776.8
8	배	182.9	186.2	189.5	192.6	195.5	1,096.7
과일 총계		18,230.8	18,536.8	18,846.4	19,166.8	19,505.5	112,258.9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브라질 신선과일 시장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6%의 성장이 예상되며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까지 세부품목별 예상 판매 성장률로는 딸기가 12%로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뒤이어 바나나(11%), 체리(10.8%) 순
 - 배는 9.2%의 성장이 예상되며 전체 과일 판매 예상 성장률인 8.5%보다 높은 수준

으로 전망

- 전체 과일 소비량 중 신선 배 소비량은 많지 않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입 시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판단됨

2) 신선 배 시장 현황

□ 브라질 신선 배 시장 현황

- 브라질 신선 배 소비량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자급률이 10% 이하로 대부분 수입 물량에 의존하며 자국 생산비율은 작은 수준
 - 사과, 배와 같은 과실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가 주된 원인으로 대부분의 신선 배 수요량은 수입품에 의존
- 자국 내 신선 배 생산량은 작은 규모이며, 2017년 16,200톤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
 - 신선 배 생산은 브라질 남부 및 서남부 지역인 히우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 파라나(Parana), 상파울루(Sao paulo) 및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주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 해당 지역의 수확 과일은 주로 중소도시에서 판매되며 대규모 도매상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음
 - 배의 경작비용이 열대과일보다 높아 신규 배 생산 과수농가가 증가하지 않음

표 1.6 브라질 신선 배 품목 수급 현황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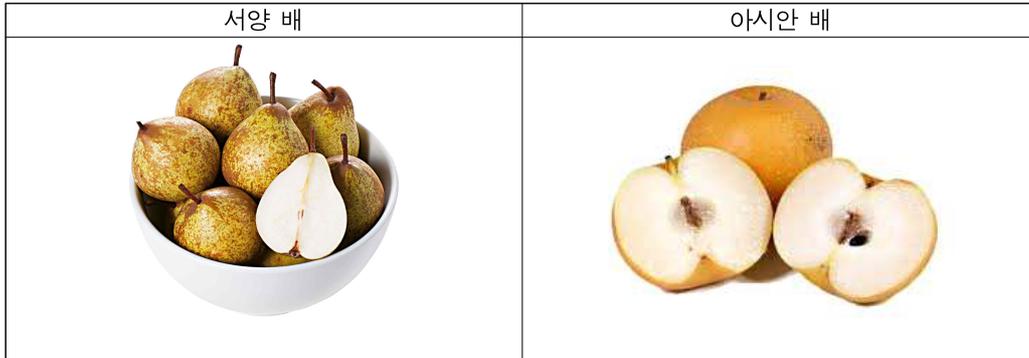
	2015	2016	2017
생산량(A)	19,000	18,000	16,200
수입량	179,300	170,000	190,500
수출량	-	-	-
소비량(B) ⁵⁾	198,300	188,000	206,700
자급률(A/B)	9.6%	9.6%	7.8%

자료: USDA

□ 브라질 신선 배 소비, 서양 배가 주류

-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배는 아시안 배와 서양 배로 구분되며, 서양 배 섭취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아시안 배에 대한 반응이 좋음
 - 브라질 현지 내 신선 배 생산량은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입산 배를 많이 유통

5)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Pao de Acucar

- 아시안 배는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았지만 특유의 아삭한 육질, 높은 당도, 신선한 맛으로 서양 배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브라질 국영 방송사 Rede Globo에서 현지 아시안 배 농장을 조명하며 서양 배와 비교해 당도가 높은 과일이자 웰빙식품으로 소개⁶⁾
- 현재 브라질 내 아시안 배는 40년 전 일본으로부터 종묘씨앗을 수입해 상파울루(Sao Paulo) 외곽도시 살루 미겔 아르칸주(Salo Miguel Arcanjo) 시에서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로 4~5월에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농장에서 수확된 과실은 주로 상파울루 주 내에서 소비되며 연간 약 60톤 정도의 수확량을 보임. 현지 소비자 가격은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서양 배(kg당 2헤알)보다 다소 비싼 kg당 8헤알로 유통

❖ [현지 언론기사] 브라질 건강전문지 Mundo Boa Forma, ‘아시아 배’의 9가지 웰빙효과 소개

- 아시아 신선 배가 다이어트 효능 및 해독작용, 항암작용 등의 9가지 장점이 있는 건강식임을 강조

※ 시사점

- 브라질 중산층의 건강식 및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국산 ‘신선 배’ 수출의 신규 시장개척에 기회 요소
- 중산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상 효능을 강조하며 고급 백화점 및 유기농 유통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펼친다면 신선 배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

자료: Mundo Boa Forma, ‘9 Benefícios da Pera Asiática - Para Que Serve e Propriedades’ 2017.6.2

6) 브라질 국영 방송사 Rede Globo의 식문화 관련 프로그램 ‘Com vocês, a pêra asiática!’ 방영

3. 수출입 및 생산통계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개요

❖ 신선 배 관련 주요 수치

- 글로벌 신선 배 수입 시장 규모 약 26억 8,000만 달러(2017)
- 브라질 신선 배 수입 시장 규모 약 15만 1,000 달러, 세계 5위(2017)
- 글로벌 시장 내 브라질 신선 배 수입시장 점유율 약 5.6% (2017)
- 브라질 신선 배 소비량 206,700톤(2017), 자급률 7.8%

❖ 신선 배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808.30.0000	신선 배
브라질	0808.30.00	Pera

❖ 글로벌 신선 배 수입시장 규모(2017)

수입국	2017	
	금액(백만 US 달러)	
글로벌	2680	
1 독일	232	
2 인도네시아	198	
3 러시아	186	
4 네덜란드	174	
5 브라질	151	

❖ 국가별 신선 배 수입시장 규모(2017)



❖ 국가별 신선 배 브라질 시장점유율(2017)



❖ 브라질 신선 배 시장 규모 추이(2012-2017)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 신선 배 통계 기준 설정

- 세계시장 수입 통계 및 한국의 수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 기준을 설정
 - 브라질 시장에서는 NCM 코드를 기준으로 하기에 NCM 코드 기준 브라질 내 수입 통계량을 확인

□ 신선 배의 HS CODE는 한국 0808.30.0000, 브라질 0808.30.0000으로 설정

표 1.7 항목별 신선 배 통계 기준 설정

조사항목	통계 기준	
글로벌 수입 규모 및 성장률	HS CODE 0808.30	
브라질 수입 규모 및 성장률	NCM CODE 0808.30.0000	
브라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080830000	Fresh pear
한국 신선 배 수출 규모	0808300000	배 (신선/냉장)

표 1.8 브라질 신선 배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한글)	품명(영문)
한국	08	과실·견과류	
	08	사과, 배 및 마르멜로 (신선한 것에 한한다)	
	30	배	Pears
브라질	0808	과실·견과류	
	300000	사과, 배 및 마르멜로 (신선한 것에 한한다)	
	300000	사과, 배 및 마르멜로 (신선한 것에 한한다)	Pears

- 기본세율: 10 %

2) 글로벌 수입 통계 (통계기준: HS CODE 0808.30)

□ 2017년 글로벌 수입 규모 1위는 독일이며, 브라질은 5위

- 2017년 전 세계 신선 배 수입시장 규모는 총 약 26억 8,000만 달러로 약 272만 8,000톤에 달함
 - 신선 배 수입 1위 국가는 독일로 2017년 기준 약 2억 3,200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각각 1억 9,800만 달러, 1억 8,600만 달러
- 브라질의 경우 2016년 전체 수입 규모 기준 3위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두 단계 하락한 5위를 기록

그림 1.2 국가별 신선 배 수입시장 규모

단위: 백만 US달러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3) 브라질 신선 배 수입 통계

- 브라질 내 신선 배 수입량은 2017년 15만 6,186톤으로 전년도 14만 6,778톤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국으로는 2017년 기준 아르헨티나가 약 8,255만 US달러로 가장 높으며, 포르투갈(4,396만 US달러), 스페인(1,606만 US달러) 순으로 나타남
 - 한국산 신선 배는 2017년부터 첫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수준

표 1.9 브라질 신선 배 주요 수입국(2017)

단위: 천 US달러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1	아르헨티나	105,974	87,928	82,552
2	포르투갈	37,202	34,529	43,962
3	스페인	7,641	13,435	16,056
4	칠레	4,307	3,202	4,332
5	미국	3,371	2,844	2,680
6	이탈리아	403	834	1,299
7	기타	365	194	124
	합계	159,263	142,966	151,005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1.3 브라질 신선 배 수입액 국가별 비중(2017)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아르헨티나산 배는 초봄부터 가을까지, 스페인산은 가을부터 겨울, 포르투갈산 배는 여름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입됨

○ 아르헨티나산 배는 2월부터 수입량이 증가하여 5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9월부터 다시 감소함

- 2017년 아르헨티나산 배의 수입액은 5월에 약 1,038만 US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포르투갈산 배는 6, 7월을 제외하고 꾸준한 수입량을 보여주며 12월에 최고치를 기록

- 2017년 포르투갈산 배는 12월에 가장 많이 수입되어 약 785만 US달러를 기록
- o 스페인산 배는 8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수입량을 보여주며 10월에 최고치를 기록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 브라질로의 수입량은 전무한 수준
- 2017년 스페인산 배는 10월에 가장 많이 수입되어 약 415만 US달러를 기록

표 1.10 브라질 신선 배 주요 수입국 최근 3개년 월별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 르 헨 티 나	2017	5,706	7,460	10,233	9,732	10,381	8,141	7,961	7,931	5,194	3,684	3,587	2,542
	2016	3,581	7,014	8,522	11,185	12,073	8,904	8,027	8,928	5,604	5,280	4,585	4,225
	2015	5,799	13,487	12,754	14,557	7,277	6,897	11,691	9,487	8,614	6,762	4,931	3,718
포 르 투 갈	2017	3,989	4,250	4,453	2,974	3,040	467	27	3,211	4,244	3,936	5,526	7,846
	2016	3,873	3,510	4,286	3,799	1,920	239	24	89	3,139	4,788	3,644	5,216
	2015	4,388	4,027	4,930	3,496	1,631	677	118	1,737	3,677	2,269	3,757	6,496
스 페 인	2017	172	19	-	-	-	-	56	2,169	3,973	4,151	3,073	2,443
	2016	222	1	-	-	-	-	-	1,486	3,116	3,510	2,655	2,445
	2015	151	-	-	-	-	-	82	676	1,982	2,179	1,003	1,568
한 국	2017	-	-	-	-	-	-	-	-	-	2	6	16
	2016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4) 한국산 수출 통계 (통계기준: HS CODE 0808.30.0000)

- o 2017년 신선 배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6.1% 증가한 2만 7,157톤 기록.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1만 64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만(9,067톤), 베트남(4,967톤), 홍콩(634톤) 순
- 브라질 시장의 경우 2017년부터 첫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수출량은 12.7톤으로 전체 수출물량 대비 0.04%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
- 브라질 외 중남미국가들 중 수출국가로는 과테말라(8톤)가 유일하며 중남미 지역 수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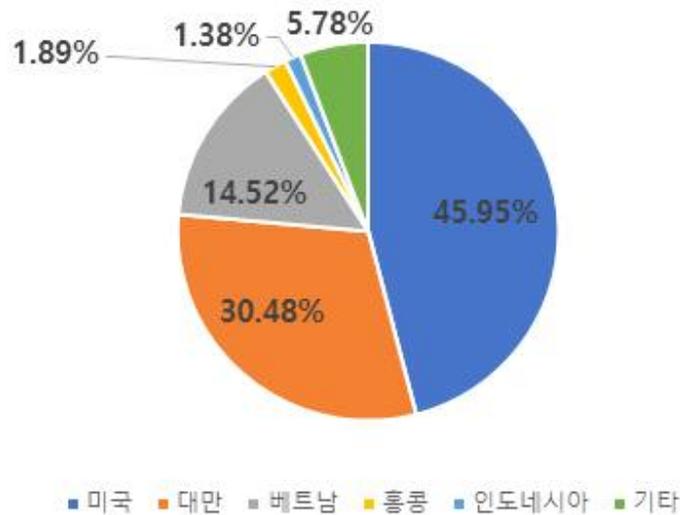
표 1.11 한국산 신선 배 시장별 수출현황

(단위: 톤, 천 US 달러)

순위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미국	10,359	29,482.5	10,640.5	30,401.7	2.7	3.1
2	대만	9,914	23,333.4	9,067.3	20,165.7	△8.5	△13.6
3	베트남	2,383	4,960.6	4,967.8	9,609.1	108.5	93.7
4	홍콩	475	991.8	634.8	1,248.6	33.8	25.9
5	인도네시아	1,203	3,245.7	390.1	913.1	△67.6	△71.9
24	브라질	0	0	12.7	33.6	-	-
총계		25,606.7	65,356.0	27,157.2	66,159.1	6.1	1.2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통계(www.kati.net)

그림 1.4 한국산 신선 배 시장별 수출 비중(2017)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통계(www.kati.net)

5) 브라질 신선 배 시장규모 추이(2012-2017)

□ 브라질 신선 배 시장 규모는 2017년 17만 9,000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시장 성장률 역시 지난해보다 회복 추세이지만 2014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지우마 前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
- 테메르 정권 이후 브라질 경기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 대선 이후 경기 모멘

텀 획득 여부가 관건

그림 1.5 브라질 신선 배 시장규모



자료:Euromonitor International



II. 시장 트렌드

1. 정책 관련 동향
2. 신선식품 시장 트렌드
3. K-Food 소비 트렌드

시장 트렌드 개요

1. 정책 관련 동향

- ❖ 한-MERCOSUR 무역협정 타결 시 수출확대 기대
- ❖ 한국산 신선 배, 브라질 농림축산부 검역협상 타결

2. 신선식품 소비 트렌드

- ❖ 브라질 신선식품 생산량 성장에 따른 경제선방 영향 기대
- ❖ 내수경제 활성화 시 중산층 성장으로 인한 브라질 신선식품 수요 증가 예상

3. K-Food 소비 트렌드

- ❖ K-POP 열풍을 통해 K-Food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 ❖ 한국문화 열풍을 활용한 한국식품 홍보 시 현지인들의 관심 증가 기대

1. 정책 관련 동향

□ 한-MERCOSUR 무역협정(TA)⁷⁾ 협상 재개

- 2017년 2월 브라질 정부는 한국과 FT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 2018년 3월 한국 정부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한-MERCOSUR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2018년 5월 방한 중인 MERCOSUR 4개국 장관들과 함께 무역협정 현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며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대외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협상 타결 시 남미 인구의 70%(2억 9,000만 명), GDP의 76%(2조 7,000억 US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증대 기대
 - 특히 지우마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테메르 대행체제 이후 경기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음에 따라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 시 통상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 MERCOSUR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차 및 기계류에 편중되어 있으나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식품 등 수출품목 확대 기대

<한-MERCOSUR 무역협정(TA) 연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05 ~ 2006.12 양국 정부 간 FTA 공동연구 완료• 2007.10 연구보고서 채택• 2015.04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회 설립• 2015.05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회 1차 회의• 2016.06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회 2차 회의• 2016.11 한-MERCOSUR 무역협정(TA) 예비협의 개최• 2018.05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개시 |
|---|

□ 2017년 브라질 농축산부, 한국산 신선 배 수출검역협상 타결

- 브라질 수출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하기 통관 및 검역 규정에 따라 브라질 시장 신선 배 상품 수출이 가능
 - 브라질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과수원 등록신청서(한국산 배 생과실 브라질 수출 검역요청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

7)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MERCOSUR 측 요청에 의하여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으로 지칭

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에게 신청해야 함

□ 브라질 보건부 '식품 소비 가이드라인', 신선 과일 섭취 적극 권장

- 브라질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위해 브라질 보건부에서는 각 식품별 올바른 식품 소비 가이드 라인을 제시⁸⁾
 - 보고서에 따르면 풍부한 영양가 섭취를 위해 천연식품 및 최소 가공식품을 식단의 기초로 삼을 것을 권장
 - 가공식품의 섭취를 지양하고 신선 식품인 과일, 채소 및 유제품류에 대한 섭취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천
 - 특히 신선 식품의 경우 소금, 설탕에 절이거나 기타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할 것으로 제시

2. 신선식품 소비 트렌드

□ 브라질 과일 소비 트렌드

- 브라질 식단에서 과일은 주로 아침 및 디저트로 가볍게 섭취
 - 브라질인들에게 과일은 주로 조리식품 및 가공식품 섭취시 보완식품으로 여겨짐
 - 신선 과일 섭취 시 샐러드 형태로 섭취 및 다른 과일 및 설탕을 첨가하여 주스로 섭취하는 것이 보편화
-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과일은 열대과일이 대부분임에 따라 사과 및 배를 신선과일로 섭취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
 - 소비자들이 신선과일 구매 시 마트의 진열상태, 과육의 빛깔 등을 중요하게 고려

□ 웰빙 트렌드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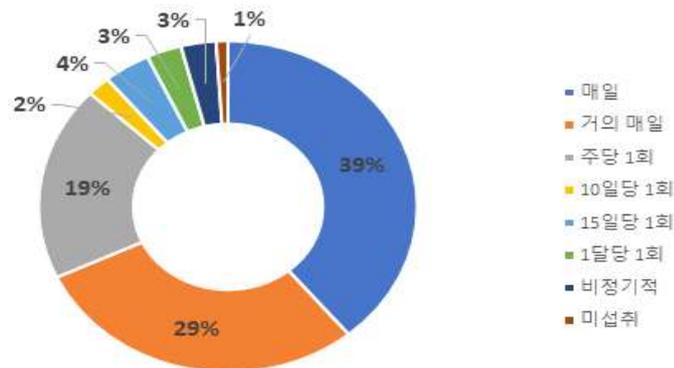
- Atradius의 2017 브라질 음식시장 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 브라질 음식 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든 국가경기와 농산물 수확률 증가로 긍정적으로 전망
- 브라질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으로 인해 브라질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킬 주요 요인으로 분석⁹⁾

8) DIETARY GUIDELINES FOR THE BRAZILIAN POPULATION 2014 by Ministry of Health of Brazil

9) 자료: Market Monitor Food December 2017 by Atradius

- 지난 경기불황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준 웰빙식품 관련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줌에 따라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웰빙식품의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브라질 리서치 기관인 Datafolha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과체중 인구 비율은 지난 10년전보다 약 26.3% 증가한 56.3%로 조사됨
- 과체중 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라 브라질 내 다이어트,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브라질 148개 도시 2,098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 국민의 10명 중 4명만이 매일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과일소비 습관으로는 여성의 경우 35%인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42%가 매일 과일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

표 2.1 브라질 과일소비 식습관 설문조사



자료: Datafolha(2017)

3. K-Food 소비 트렌드

□ K-Pop 인기를 통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 K-Pop 인기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지 시장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
 - 한국문화원의 주최로 매해 'Festival do Sabores da Coreia(한국의 맛 축제)'를 개최하며 한국식품 홍보
 - 2017년 축제에서는 한국 식품 중 한국 신선 배도 홍보하며 현지인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음

- o 현지 방송국 Rede Brasil의 요리방송 프로그램인 ' Receita na Mesa '에서는 지난 2017년 한국산 신선 배를 활용한 요리(육회)를 소개
 - 한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산 배의 식재료 활용성을 홍보
 - 신선 과일로 섭취 뿐만 아니라 식재료 활용에 대해 홍보한다면 한국 산 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그림 2.2 브라질 방송 'Receita na Mesa' 한국 배 활용 육회 요리 시연



자료: Receita na Mesa, 2017.11.20

❖ [현지 소비자 인터뷰]

소비자 프로필

성명: Luana

연령(성별): 32세 (女)

직업: UX 디자이너

Q1. 신선 배 구입 시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하나?

“신선도, 향, 가격을 주로 고려한다. 가격은 15헤알/kg까지는 구매의사가 있다. 배 품종은 중요하지 않다”

Q2. 수입산 신선 배에 대해 인식은 어떠한가?

“배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알고 있어 특별한 거부감 없이 구매한다”

Q3. 한국산 배 혹은 아시안 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나(없다면 그 이유는)?

“한국산 배를 포함 아시안 배를 먹어본 적은 없다. 주로 방문하는 마트 매장에서 아시안 배를 찾아본 적이 없다”

Q4. 한국산(아시아)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경험해본 적이 많지 않아 생소하다”

Q5. 선호하는 수입식품 품목이 있나? 주로 어떤 원산지를 선호하나?

“아르헨티나, 칠레산 과일 품목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소비자 프로필

성명: Eduardo

연령(성별): 38세 (男)

직업: 회사원

Q1. 신선 배 구입 시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하나?

“가격을 제일 많이 고려한다”

Q2. 수입산 신선 배에 대해 인식은 어떠한가?

“과일은 브라질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입산 과일이 더 입맛에 맞는 것 같다”

Q3. 한국산 배 혹은 아시안 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나(있다면, 향후 구매 의사가 있나)?

“한국산 배는 먹어본 적 없으나 아시안 배는 먹어 본 적이 있다.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우수했으나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Q4. 한국산(아시아)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많이 접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

Q5. 선호하는 수입식품 품목이 있나? 주로 어떤 원산지를 선호하나?

“칠레산 과일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자료: 현지조사원

소비자 대상 인터뷰 진행(2018년 06월)



Ⅲ. 통관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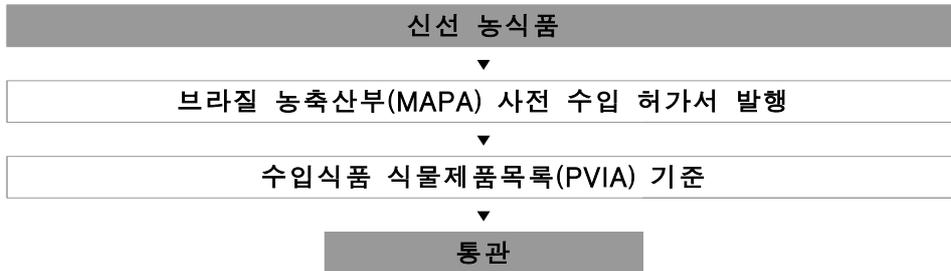
1. 통관 및 검역
2. 인증정보
3. 라벨링
4. 위생요건

통관 및 검역 개요

❖ 브라질 농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주요내용	체크사항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 계약진행	-
2	서류준비	- 포장명세서 - 상업송장 - 세관 수출신고서 - 선하증권 - 수출 라이선스	-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 제품명, 원재료명, 중량, 원산지 수입업체 명칭 및 주소, 제조일자(겉 포장용기에 표시) 유통기한, 취급사항 *포르투갈어로 기재
3	선적/운송	- 물류대행사(MVOCC) 선정 - B/L 발급 - 환적 서류	- 주요항만 • 산투스(Santos) •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 주요공항 • 상파울루(Viracops Brasilia)
4	수입신고/검역	- 수입신고서 제출 - 항공 운송 반입신고	- 무역자동화시스템(SICOMEX)
5	통관	- 세금 납부 - 식품검사 및 식품검역 (라벨링, 성분분석, 샘플링 5%)	- 농축산부/위생검역국 (MAPA/ANIVISA)
6	반출	- 적합 판정, 통관 수리 - 방역 용도 전환 후 통관 - 폐기 및 반송	

❖ 품목별 통관 절차



관세 및 세금 개요

❖ 브라질 HS-CODE 0808.30.00의 협정세율(2017년 기준)¹⁰⁾

HS CODE 품명	구 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t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Manazanas, peras y membrillos, frescos)		
0808.30.00	배 (Peras)	10.00 %	한국

❖ 브라질 관세율 확인 방법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브라질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최혜국 관세율 확인이 가능

분류	기관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MERCOSUR 관세열람	www.sarem.mercosur.int

관세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FTA 콜센터'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¹⁰⁾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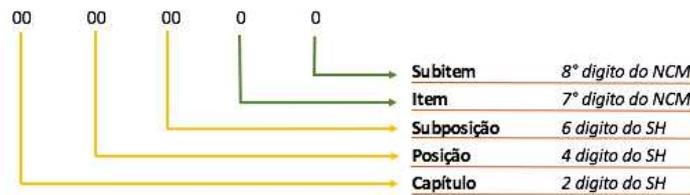
1. 통관 및 검역

1) 통관 및 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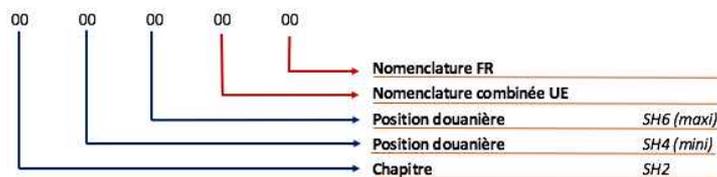
□ 브라질 수출 환경

- 브라질은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도착가격의 약 50% 이상의 세금이 됨. 또한 강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만연
 - 세관항만운송 노조의 파업이 잦고 통관절차도 복잡해 브라질 수출의 큰 걸림돌이 됨
 - 브라질 연방세관에서 부여하는 ‘수입면허’ 를 취득해야만 수출입 무역업이 가능
-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
 - Mercosur 회원국들간 대외공동관세를 통해 외국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철폐하여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짐
 - 한-Mercosur TA 타결 시 그동안 큰 걸림돌이었던 관세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브라질에서는 HS코드(4자리)와 브라질 분류번호(4자리)를 사용하는 NCM 코드를 사용
 - 하지만 HS코드 분류 중 애매하다고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소급적용돼 큰 페널티를 물 수 있음
 - HS코드에 관해 따로 정확하게 답해주는 부서가 없기에 반드시 현지 수입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그림3.1 HS 코드/NCM 코드 정렬기준



표준 HS 코드 정렬기준



브라질 NCM코드 정렬기준

□ 세금 체계

- 수입 시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공산품세(IPI)와 주(州)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 사회보장세(Pis/Confins)가 있음
 - 수입관세: NCM 코드 분류에 따라 품목별로 상이
 - 공산품세(ICU): 연방정부세금(국내 생산제품 판매 시,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
 -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 주 부가가치세, 상품수입, 용역 및 운송서비스 등에 부과, ICMS는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Credit으로 적립하여 차후 납부 시 사용 가능
 - 사회보장세: 사회통합기여금(PIS) & 사회복지기여금(COFINS)

- 브라질 세금체계는 누진세 방식으로 수입가격이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
 - 세계은행(World bank)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평균 브라질 세금 처리 소요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으로 나타남

표 3.1 수입통관 시 납부세금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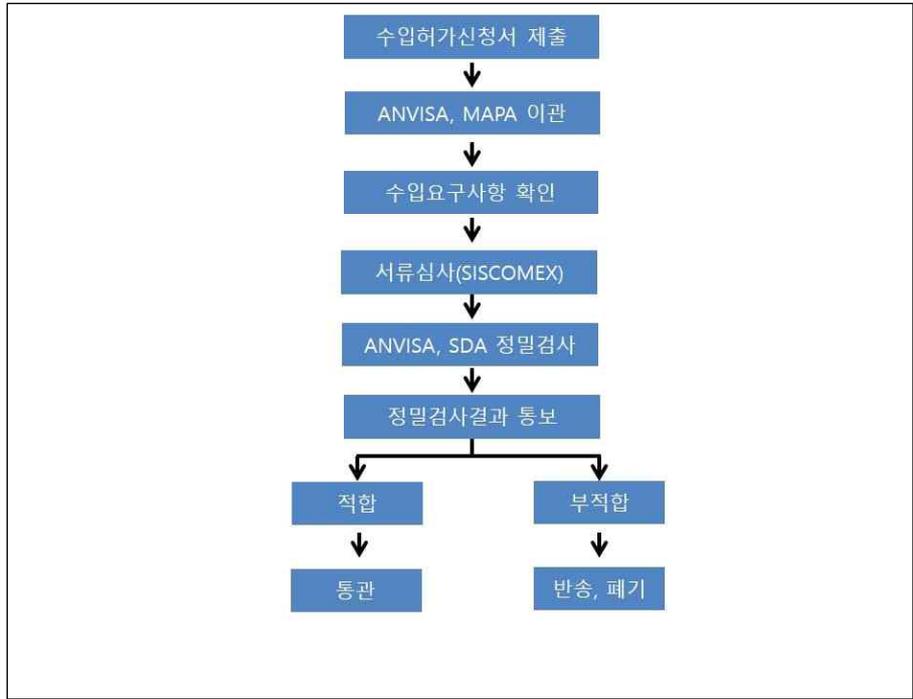
세금명	세율	세금산출방식
수입관세(II)	품목별 상이	제품가격 CIF X 관세율
공산품세(IPU)	품목별 상이	(CIF+II) X 공산품세율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주(州)마다 상이 (상파울루 주: 18%)	$[(CIF+II+IPI)(1-ICMS\text{세율})] \times ICMS\text{세율}$
사회보장세(Pis/Confins)	1.65% 7.60%	$(CIF+II+IPI+ICMS) \times \text{사회보장세율}$

자료: www.tradenavi.or.kr

□ 신선식품 수출 전 신고절차

- 수입식품 관리는 브라질 농업가축식품부(MAPA)에서 농축산 식품을 관리하며 그 외 가공식품은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독기관(ANVISA)에서 관리

그림 3.2 브라질 수입식품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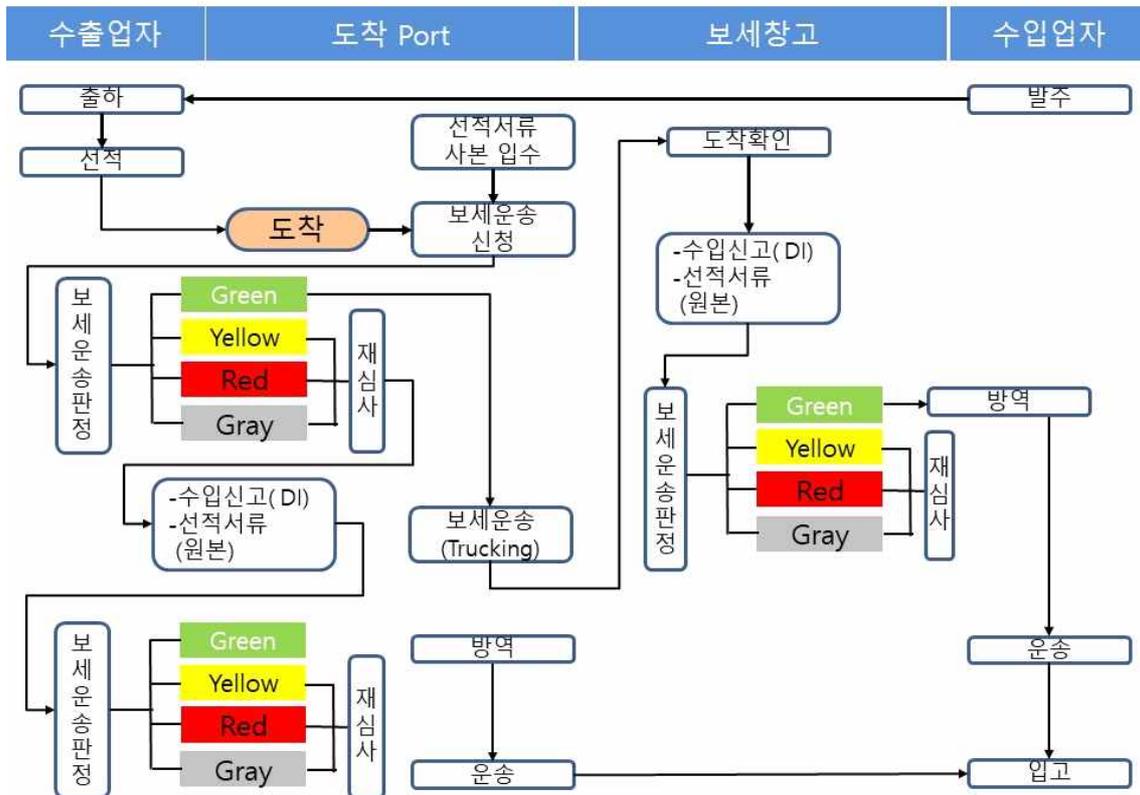
□ 브라질 수입 통관 프로세스

- 수입통관 서류절차는 수입자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은 통관 브로커(한국의 관세사)가 진행하게 됨
 - 필요 통관서류로는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원본을 수입자로부터 인도받아 전산망(SISCOMEX)에 수입신고 데이터를 입력
 - 수입신고 완료와 동시에 관세, 공산세, 사회세, 주 유통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채널배정'을 통해 통관 절차 진행

※ 브라질 화물검사 분류 기준

- Green: 자동통관
- Yellow: 서류심사
- Red: 서류 및 화물심사
- Gray: 서류 및 화물 정밀심사

그림 3.3 브라질 수입통관 절차



□ SISCOMEX 등록절차

- 대외무역국(SECEX)의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통해 업체 및 수출정보 등록
 - 판매 등록(Sale Registration): 수출등록 전에 이뤄져야 하는 수출품의 기본적인 물품거래 판매정보를 등록하는 단계(Secex 법령 36/07번 참조)
 - 신용 등록(Credit Registration): 수출물품의 자금정보를 등록하는 단계로, 지불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때, 동일 기간 혹은 더 짧은 기간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의무 등록
 - 수출 등록(Export Registration): 상업, 자금,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로 반드시 수출신고 전에 이뤄져야 함. SISCOMEX상의 정보기재표를 작성하면 대외무역국 및 관련 부처의 심사에 따라 등록유효, 등록유효연기로 분류
- 브라질 개발산업부(MDIC)산하 무역사무소(SECEX)에서는 수출입 상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입 관세 및 외국 상품의 반덤핑 사례를 결정
 - SECEX에 수출입업자등록사무소에 등록된 브라질 현지 법인만이 해외상품 수입 가능
 - 브라질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곡물, 야채, 채소, 견과류, 종자)은 수출국 정부의 농산물검사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단, 냉동과일 및 채소는 해당하지 않음)

□ 선적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품 상세설명 기재
- 수입자(법인) 정보: CNPJ#(브라질 국세청 등록잡세번호), 수신인 성명 및 연락처
- 정확한 중량 기입: Gross Weight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정밀검사로 판정(B/L 상에는 테어웨이트(Tare Weight) 반드시 표기)
- 인코텀즈(Incoterms) 기재 시 반드시 FOB, Freight를 별도 명기
- CI/PL상 반드시 파란색 잉크로 실서명이 된 원본서류 송부
 - 통관 시 세관에 원본 서류제출 必
- 원산지 표시: '상품별' 영문으로 원산지 표시
- 제조자명 및 주소표시

□ 필수 수출검역 제도

- o 브라질 신선 배 수출 진행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사전 등록 및 관리가 필수
 - 브라질측에서는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제 및 관리를 수출국에 필수적으로 요구

표3.1 신선 배 브라질 수출시 검역 병해충 목록

구분	병해충 명
해충 12종	Amphitetranychus viennensis(벚나무응애), Tetranychus kanzawai(차응애), Tetranychus truncatus(뽕나무 응애),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온실가루깍지벌레), Acrobasis pyrivorella(배명나방), Adoxophyesorana(애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i(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dimorpha(복숭아순나방볼이), Spilonota albicana(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병 5종	Altermaria gaisen(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겉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binae(European pear rust)

자료: 브라질 농축산품공급부(Ministerio da Agricultura, Pecuaria e Abastechimento)

2) 통관 및 검역 시 유의사항

□ 식품 검역 주의사항

- o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식물위생부(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에 통보

***검역절차**

- 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브라질의 검역병해충 부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
 - a.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
 - b.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
 - c.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동정을 요청
- ②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수출식품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하기 부기사항 기재

부기사항

- ▶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

- ③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해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가 가능
 - a.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처리되며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점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됨.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검출 사항을 본부에 알리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 사항을 브라질 식물위생부에 통보
 - b. 검역병해충 검출로 불합격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사과실은 브라질로의 수출이 불가능함. 해당 수출과수원산 배 사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QI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수출과수원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
 - c. 병해충 분류·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
- ④ 기타 수출식물검역 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름

2. 인증정보

□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인

-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을 위하여 과수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
-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등록번호를 통보
-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을 해당 연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

□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을 위하여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
-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등록번호를 통보
-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 연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

3. 포장 및 라벨링

□ 포장 규정

- 브라질 시장의 식품 포장 규정은 전반적으로 WTO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따름
 - MERCOSUR의 회원국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과의 공통규정을 준수
 - 브라질 식품 수입 및 안전규정에 대한 책임은 ANVISA에서 담당하며, 식품포장 역시 해당 기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라벨링 규정

1) 수출용 상자

- 브라질로 수출되는 모든 신선 배 상품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 선적이 진행되어야 함
 - 상품의 생산 및 검역절차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하는 수확 상자에는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 표기 필요
 - 배 생과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선과, 검역, 포장, 저장 및 수송되어야 하며, QIA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배 생과실은 봉지가 찢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
 - 부패, 상처 등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처리
 - 배 생과실은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
 -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포장 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 지인 “To Brazil” 표기

Packinghouse Code
Orchard Code
To Brazil

-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흙, 잎,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함
- 타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 작업을 해서는 안됨
-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배 생과실은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 전 배 생과실, 타 국가 수출용 및 내수용 배 생과실,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분리하여 보관
- 포장된 배 생과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하여 봉인

2) 브라질 시장 유통 시 포장규정

- o 2001년부터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에게 아래와 같은 영양표시를 반드시 포르투갈어로 기재¹¹⁾)

표 3.2 라벨링 표시사항 및 예시

표시사항	라벨링 샘플(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 - 원재료 일람 - 내용량(정량) - 원산지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명 - 제조번호(Lot No.): 알파벳 “L” 다음 회사코드 기재 - 원제조일(또는 사용기한) - 유통(소비)기한 - 취급 주의사항 - 조리법, 사용법 설명(필요 시 기재) 	

자료: 현지 조사원

11) 단, 다음과 같은 항목에는 라벨표시가 적용되지 않음: 생수 및 이와 유사품/알콜음료/후추/캐러웨이, 육두구, 계피 등과 같은 향신료/식초/소금/다른 성분을 미포함한 커피, 마테차, 허브 및 기타 차 종류/포장된 샌드위치, 푸딩, 무스 등의 디저트 및 과일 샐러드 종류/냉장 또는 냉동 과일, 야채, 고기/치즈, 소세지 등이 부분 절단되어(sliced) 판매되는 제품/100cm² 이하의 포장재로 포장된 상품

4. 위생요건

□ 잔류농약 기준

- 브라질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농축산물은 ANVISA에 의해 철저히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해당 기준 수치는 CODEX의 기준을 따름

표 3.3 CODEX 기준 신선배 농약잔류량 검출 품목 및 기준량

종류	MRL	적용연도
2-Phenylphenol	20 mg/Kg	2003
Azinphos-Methyl	2 mg/Kg	1997
Azocytotin	0.2 mg/Kg	2006
Buprofezin	6 mg/Kg	2010
Cyfluthrin/beta-cyfluthrin	0.1 mg/Kg	2008
Cyhexatin	0.2 mg/Kg	2006
Dimethoate	1 mg/Kg	1991
Dephenylamine	5 mg/Kg	2004
Ethoxyquin	3 mg/Kg	2009
Etofenprox	0.6 mg/Kg	2012
Imidacloprid	1 mg/Kg	2004
Indoxacarb	0.2 mg/Kg	2006
Methidathion	1 mg/Kg	1999
Methomyl	0.3 mg/Kg	2009
Oxydemeton-Methyl	0.005 mg/Kg	2006
Tebuconazole	1 mg/Kg	2012

자료: CODEX



IV. 경쟁제품

1. 경쟁제품 선정
2. 경쟁제품별 분석

1. 경쟁제품 선정

□ 경쟁제품 선정 방식

- 수입품과 현지 생산품 비교 조사 시행
- 품종은 다르지만 현재 브라질 시장 내 신선 배 시장 수입국 상위제품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칠레 제품을 선정

□ 현지 매장 방문 기준

- 한인마트/아시안 식품점 :오뚜기 식품점, Murakai 식품점

유통 채널					
마트명	오뚜기 식품점	Maruki	Carrefour	Pão de Açucar	Santa Luzia
구분	한인마트	일본계 식품점	대형마트	대형마트	대형마트
주소	Rua tres rios 251, Bom retiro	Rua Galvão bueno 34, Liberdade	Praça Alberto Lion 100, Cambuci	Rua Pedroso, 215, Bela Vista	Rua Alameda Lorena, 1471, Jardim Paulista
주요 타깃층	- 한인 - 일부 현지인	- 아시아계 이민자 - 한인 - 일부 현지인	- 중산층	- 중산층	- 상류층

2. 경쟁제품별 분석

□ 경쟁제품 동향

- 현지시장조사 결과 브라질 생산 및 칠레산 아시안 배가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
 - 한국산 신선 배와 같은 품종인 아시안 배가 잠재적 경쟁제품이 될 것으로 판단
 - 한국산 신선 배와 비교하여 과실 크기가 작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음
- 브라질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선 배는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산의 서양 배가 주류

□ 오프라인

① 동양배(Asian Pear)

구분		제품 #1	제품 #2
제품 이미지	제품 이미지		
	매장진열 이미지		
제품 스펙	원산지	한국	브라질
	제품명	K-Pear	Pera Asiatica
	포장 용기	폼 네트 패킹	폼 네트 패킹
	조사매장	오뚜기 식품점(한인마트)	Maukai 식품점(일본계 식품점)
	제품가격	5 헤알/개	3 헤알/개

1헤알(BRL)=286.16원(KRW)(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2018.7.4.)

구분		제품 #3	제품 #4
제품 이미지	제품 이미지		
	매장진열 이미지	N/A	
제품 스펙	원산지	칠레	칠레
	제품명	Pera Asiatica	Pera Asiatica
	포장 용기	미포장	미포장
	조사매장	Pão de açúcar	Santa Luzia
	제품가격	15.79 헤알/kg	21.9 헤알/kg

② 서양배

구분		제품 #4	제품 #5
제품 이미지	제품 이미지		
	매장진열 이미지		
제품 스펙	원산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제품명	Pera Wilians	Pera Portuguesa
	포장 용기	미포장	미포장
	조사매장	까르푸	Pão de açúcar
	제품가격	8.99 헤알/kg	9.29 헤알/kg

□ 분석결과

- 한국산 신선 배는 현지 한인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대형 마트에는 입점하지 못함
-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신선 배와 유사한 칠레산, 브라질산 배 판매
 -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서양 배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한국산 신선 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음

표 4.1 브라질에서 유통 중인 아시안 배 가격

	제품 #1	제품 #2	제품 #3	제품 #4
이미지				
원산지	한국	브라질	칠레	칠레
가격	5헤알/개	3헤알/개	15.79헤알/kg	21.9헤알/kg

- 한국산 신선 배가 현지에서 판매되는 아시안 배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다는 평이지만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상황
 - 경쟁 제품 대비 비싼 가격과 제품에 대한 홍보 부족이 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
 - 소비계층 확대를 위해 현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산 신선 배 홍보 필요



V. 경쟁사

1. 경쟁사 선정
2. 경쟁사 분석

1. 경쟁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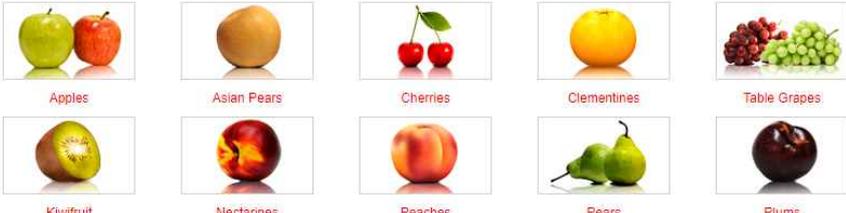
□ 선정기준

- 수입 규모: ITC Trademap 기준 상위국 수입제품 수입업체 선정
 - 칠레, 포르투갈 기업
- 온라인 조사 및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산 신선배와 가장 유사한 품종인 아시안 배 판매 혹은 유통업체 선정

2. 경쟁사 분석

	- 1901년 미국에 설립된 파인애플, 바나나 등 생과일과 샐러드용 야채 생산 및 판매기업 Dole의 자회사 - 칠레 소재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남미 전역으로 수출			
기업개요	기업명	Dole Chile S.A.	설립년도	1981
	기업형태	생산/수출업	기업 규모	종업원 수: 300 명
	D-U-N-S® Number	98-023-9743	매출액	2,200만 US달러
	국가	칠레	위치	산티아고(Santiago)
	취급품목	신선과일, 신선채소, 주스, 건과일	홈페이지	www.dole.cl
홍보전략	-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로서 TV, SNS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 홈페이지 내 자사 제품을 활용한 샐러드, 디저트 레시피 홍보			
제품				

자료: D&B Hoovers(2017), 현지 시장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과일 생산 및 판매 기업 - 시즌별 신선과일 약 700만 박스를 전 세계로 수출 - 칠레 외에도 페루에 약 1,700ha 규모의 포도농장 보유 - 아시안 배를 생산, 브라질로 수출 			
기업개요	기업명	Sociedad Exportadora Verfrut S.A.	설립년도	2007
	기업형태	생산/수출업	기업 규모	종업원 수: 30 명
	D-U-N-S® Number	98-049-3555	매출액	220만 US달러
	국가	칠레	위치	라스 카브라스 (Las Cabras)
	취급품목	신선과일	홈페이지	www.verfrut.cl
홍보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내 자사 과수원 경작 동영상 게시 - HACCP, BRC 인증서 취득 - 월마트, 테스코 등 다국적 유통채널을 통해 납품 			
제품				

자료: D&B Hoovers(2017), 현지 시장 조사원

 <p>Grupo CrisFrut Importação e Exportaçã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내 신선과일, 야채 수출업 기업 - 주요 취급 수입 과일로는 배, 사과, 딸기, 체리 등이 있음 			
기업개요	기업명	Cris Frutas Ltda.	설립년도	1998
	기업형태	수출업	기업 규모	종업원 수: 50 명
	D-U-N-S® Number	64-895-0751	매출액	200만 US달러
	국가	브라질	위치	히우 그란지 노르치 (Rio grade do Noerte)
	취급품목	신선과일, 채소	홈페이지	www.grupocrisfrut.com.br
홍보전략	- 브라질 내 대형유통시장 입점을 통한 판매 확대			
제품				

자료: D&B Hoovers(2017), 현지 시장 조사원

	- 포르투갈의 신선 배 전문 생산 및 수출 기업 - 주요 수출국은 유럽 및 브라질			
	기업명	Pera Auroa	설립년도	2001
기업개요	기업형태	수출업	기업 규모	종업원 수: 9명
	D-U-N-S® Number	N/A	매출액	1,200만 US달러
	국가	포르투갈	위치	이스트라다 나시오날 (Estrada Nacional)
	취급품목	신선 배	홈페이지	www.lusopera.com
홍보전략	- 브랜드 다양화 (AUROA, Sabor, CARMEN, PYRUS) - 홈페이지 내 생산자 및 생산과수원 정보 제공			
제품				

자료: D&B Hoovers(2017), 현지 시장 조사원

□ 분석결과

- 브라질 시장 내 수입 신선 배의 경우 대규모 농업회사나 외국 수출업체를 통한 유통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
 - 수출입 업체의 경우 브라질 내 대형 유통업체 공급을 통한 판매 확대를 이어나감
 - 자사 사이트 내 생산자 및 과수원 소개를 통해 신뢰감 형성
 - 대형업체의 경우 자사 SNS를 통한 마케팅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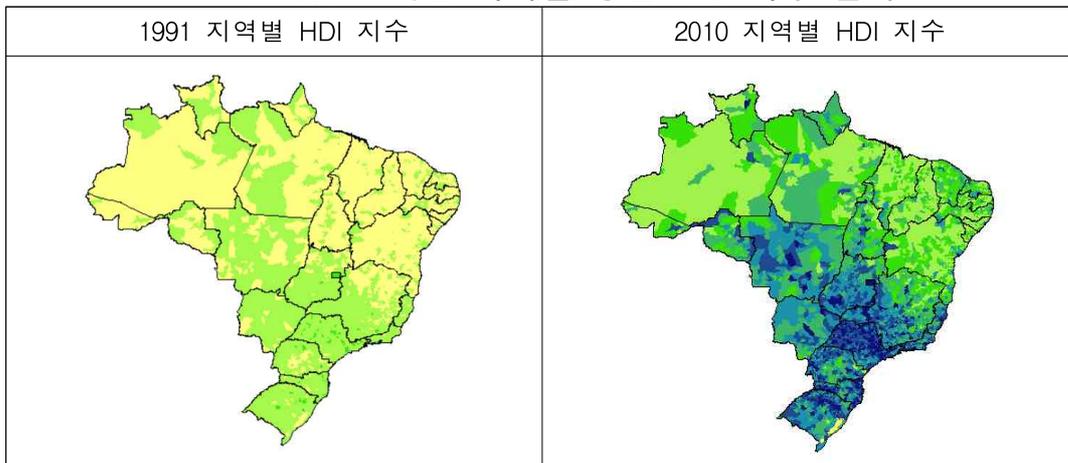
VI. 유통채널

1. 유통채널 개황
2. 유통채널 구조
3. 유통채널 현황 및 분석

1. 유통채널 개황

- 브라질 식품유통 부문의 경우 소비자 계층별로 다양하게 분류
 - 총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들이 각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분류
 -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마트, 중산층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마트가 주류를 이룸
 - 서민층의 경우 전통시장이나 각 지역별 소규모 마트를 주로 이용
- 최근 수십 년 간 브라질 시장은 국민소득, 교육수준, 건강수준이 개선되며 급진적 변화를 겪어오고 있음.
 - UN개발계획(UNDP)의 1991년과 2010년 사이의 인간개발지수(HDI)¹²⁾에 의하면 브라질의 소비시장은 점차 상승 중
 - 브라질 민간 경제연구소 FGV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현지 소비자 시장의 상승은 국민소득 증가, 교육 및 보건 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유통시장이 점차 세련된 모습으로 진화

표 6.1 브라질 지역별 평균 HDI 지수 변화



인구 구분(천 명)	도시 수(개)	POP total	2010/1991	색상별
10 ~ 30	1,979	33,663,572	76%	0.00 - 0.35 0.36 - 0.59 0.60 - 0.63 0.64 - 0.67 0.68 - 0.71 0.72 - 0.75 0.76 - 0.86
30 ~ 50	454	17,000,025	67%	
50 ~ 100	330	22,715,481	58%	
100 ~ 200	145	19,555,235	49%	
200 ~ 500	94	28,124,323	43%	

자료: F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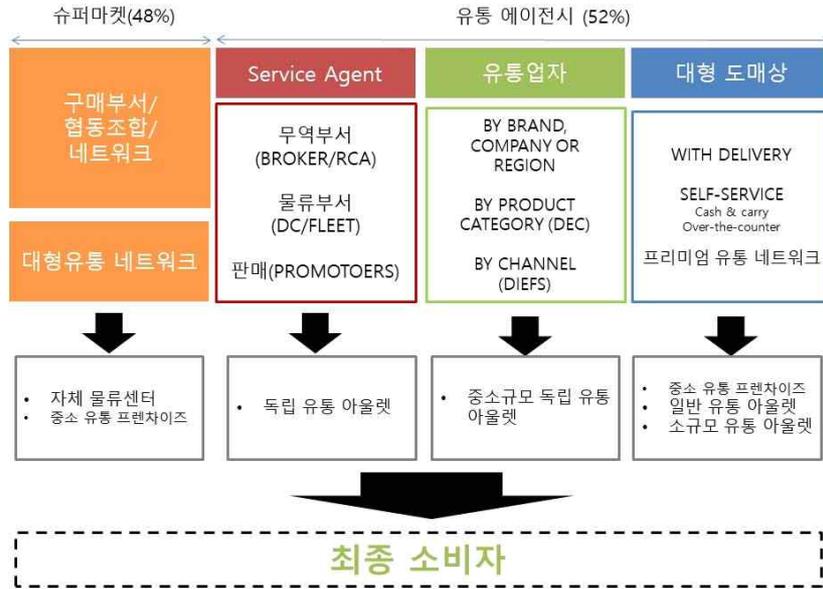
12)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전 세계에 걸쳐 각 국가별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여 산출한 '삶의 질 지수'

2. 유통채널 구조

□ 유통시장 구조

- 유통상점 규모별로는 소규모 상점이 약 38,000점으로 브라질 전체 유통구조의 약 45%로 파악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 식료품 소매점은 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며 노동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매점, 편의점, 인터넷 상점과 같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선한 과일을 구매하고 있음
 - 식료품점의 유통기술은 꾸준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 중
- 브라질 유통협회(ABAD)에 따르면 브라질의 유통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류
 - 도매유통업체(Wholesale distributor) : 독점 대리점, 품목별 전문 유통업체
 - OTC(Over The Counter) 도매업체
 - Self-service wholesale
- 유통업자: RCA/영업사원의 소매업체 방문을 통해 판매. 또한, 소매업자에게 유통독점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 공급업체의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하며 다음의 특권 보유
 - 브랜드, 회사 또는 지역
 - 제품별 분류 : 음료, 위생용품 화장품 등
 - 유통채널별 분류: 약국, 호텔, 음식점 등
- 중개상/에이전트(Service Agent)
 - 상업지(브로커/RCA)
 - 물류운영자(DC/FLEET): 제품 운송 및 보관업무
 - 판매 및 판촉(기획자): 소비자 수요파악을 통한 제품 및 브랜드 홍보

그림 6.2 브라질 유통시장 구조



자료: FGV

□ 농축산물 유통구조

그림 6.3 브라질 농수산물 유통흐름



- 브라질의 수입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전문 수입업자 또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방법이 있음
 - 전문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CEAGESP(브라질 농수산물 시장)¹³⁾, 소규모 상점을 통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
 - 상파울루 CEAGESP에서는 농축산물 수입업자 및 지역 생산업체가 도소매 거래가 가능하며 브라질 상품 선물거래소가 품질을 인증

13) 농축산공급부(Ministério da Agricultura) 소속의 농축산물 유통센터로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유통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전역에 총 13개 도매 센터를 운영. 상파울루 주의 경우 하루 1만 톤 이상의 유통량을 보이고 있으며, 상파울루 지역 공급의 약 60% 이상을 차지

□ 식품 유통 시장

- 브라질은 전통시장 및 소매, 잡화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소매 시장에서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의 점유율이 무려 54%를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
- 각 유통업체의 계층이 각각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극빈층 등 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저소득층 이하인 경우 가격경쟁 중심인 것이 특징. 따라서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반응
 - 고소득층, 중산층은 현대식 쇼핑물 구비 제품의 품질, 디자인이 주요 소비요인이 되며 경쟁적이고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지님
 - 재래식 시장은 중산층, 저소득층,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철저한 가격경쟁 중심, 비공식적 유통구조가 특징
 - 재래시장은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도매시장이 주요 역할을 담당
- 브라질 슈퍼마켓협회(ABRAS)에 따르면 과거 열악한 유통업 시장환경을 벗어나 점차 성장추세
 - 지우마 前 대통령의 탄핵 이후 현 테메르 대통령 체제가 친시장 성향을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시장경기 모멘텀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 유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소비시장 규모는 2003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약 4,313억 헤알에 달함
 - 도매부문 유통업체의 매출 역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약 2,180억 헤알을 기록
 - 이중 식품부문의 매출 비중은 50.6%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부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3. 유통채널 현황 및 분석

□ 유통업체 현황

- 브라질 3대 유통그룹인 Companhia Brasileira, Carrefour, Wal-Mart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
 - 브라질 현지 유통업체 그룹인 Companhia Brasileira는 다양한 하위브랜드를 통해 타 업체보다 압도적인 매출 순위를 보임
 - 유통업계 Top 5 업체 모두 브라질 경제의 중심인 남서부 및 남부 지역에 위치하며, 브라질 중산층을 타겟으로 삼아 성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
- Carrefour와 Wal-Mart를 제외하고 로컬 브랜드의 강세가 두드러짐

표 6.2 브라질 주요 유통업체 및 매출 순위

순위	업체명	본사 위치	매출액 (천 헤알)	점유율
1	Companhia Brasileira de Distribucao	상파울루 주	30,736.1	28.0%
2	Carrefour Com.Ind.Ltda.	상파울루 주	16,119.6	14.7%
3	Wal-Mart Brasil Ltda.	상파울루 주	12,600.4	11.5%
4	Cencosud Brasil Comercial Ltda.	세르지피 주	4,163	3.8%
5	Companhia Zafari Comercio e Industria	히우그란지두술 주	1,791.4	1.6%
	기타	N/A	N/A	40.4%

자료: FGV

□ 주요 유통업체 분석

1) Companhia Brasileira de Distribuição

기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최대 식품 유통업체 - 프랑스 Casino 사가 50% 지분 보유 - Pão de Açúcar, Extra 등 다수의 유통 브랜드 보유 		
D-U-N-S® Number	89-820-0159	설립연도	1948
본사 위치	Sao Paulo	종업원수	14만 명
대표전화	+55(11)3886-0940	홈페이지	www.gpabr.com
매출액	130억 US달러	점포슈퍼마켓	1,583 개
매장전경	 		
입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Pão de Açúcar 그룹이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야 함. - 우선 “Central de Atendimento(콜센터)에 유선 접촉하여 납품 희망의사를 밝히고 Pão de Açúcar 홈페이지 납품업체 안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아야 함 - 비밀번호를 받은 후 Pão de Açúca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메뉴 중 “Fornecedor”을 클릭하면 공급업체 등록과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홈페이지: www.grupopaodeacucar.com.br - 콜센터: +55(11) 3693-9781 		

자료: D&B Hoovers, 브라질 현지 조사원

2) Carrefour Com.Ind.Ltda.

기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계 글로벌 유통기업 - 저렴한 가격을 통해 브라질 전국에 매장 보유 		
D-U-N-S® Number	89-807-6930	설립연도	1975
본사 위치	Sao Paulo	종업원수	7000명
대표전화	+55(11)3779-6000	홈페이지	www.carrefour.com.br
매출액	1억 7,100만 US달러	점포슈퍼마켓	569개
매장전경	 		
입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담당자와 이메일 또는 유선 접촉을 통해 구매 의사 타진 - 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로 공식 등록 후 계약 체결. Carrefour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준(품질, 가격, 수량, 납기일, 생산 조건 등)을 충족시키는 업체 선정 		

자료: D&B Hoovers, 브라질 현지 조사원

3) Wal-Mart Brasil Ltda.

기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계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 -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간 수입상 통하지 않고 제품을 직접 수입 -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 		
D-U-N-S® Number	90-063-3900	설립연도	1962 (브라질에는 1994년 설립)
본사 위치	Barueri	종업원수	7100명
대표전화	+55(11)2103-5800	홈페이지	www.walmart.com.br
매출액	-	점포슈퍼마켓	1,018개
매정전경	 		
입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담당자와 이메일 또는 유선 접촉을 통해 구매 의사 타진 - 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로 공식 등록 후 계약 체결 - Wal-Mart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준(품질, 가격, 수량, 납기일, 생산 조건 등) 을 충족시키는 업체 선정 		

자료: D&B Hoovers, 브라질 현지 조사원



VII. [심청] 유기농 제품 및 유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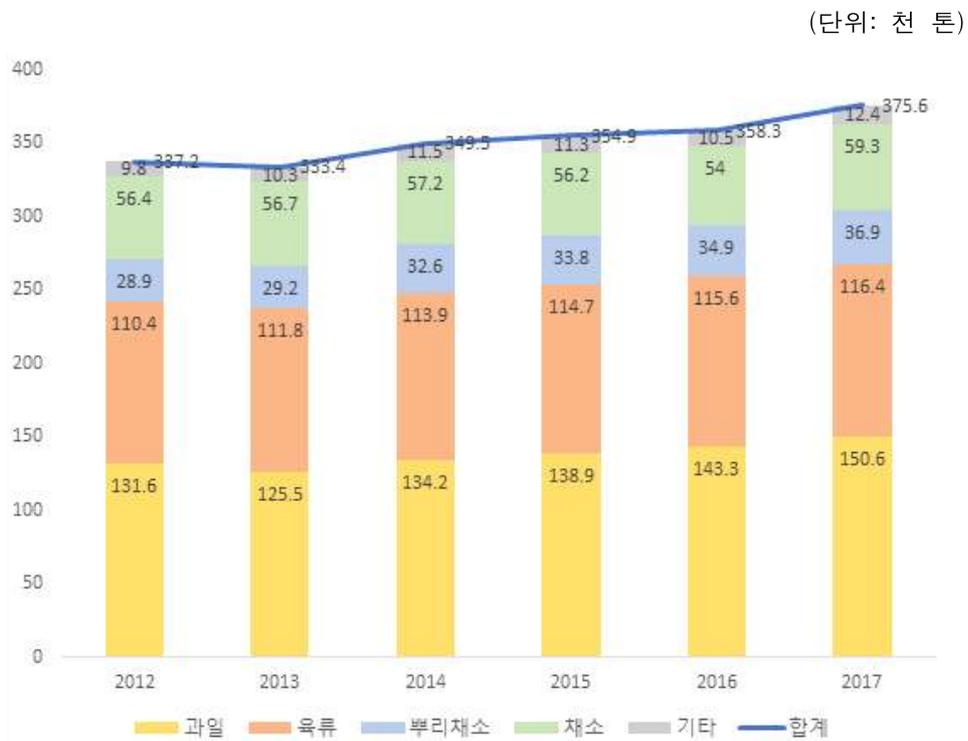
1. 유기농 시장 현황
2. 유기농 제품 인증
3. 유기농 제품 유통채널
4. 시사점

1. 유기농 시장 현황

□ 유기농 신선식품 시장 규모

- 브라질 유기농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37만 5,600톤으로 2012년 33만 7,200톤보다 약 11% 성장
 - 품목별로는 신선과일 식품이 약 40%, 육류제품 30.1%로 대부분을 차지
 - 브라질 유기농 신선식품 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성장과 '웰빙' 식품에 대한 인기 증가가 주 성장 요인

표 7.1 브라질 품목별 유기농 신선식품 판매 현황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유기농 신선과일 시장 점차 증가세

-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에 증대로 인해 ‘웰빙’ 식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에서는 유기농 제품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로 지정하며 정책적 홍보 강화

표 7.2 유기농 과일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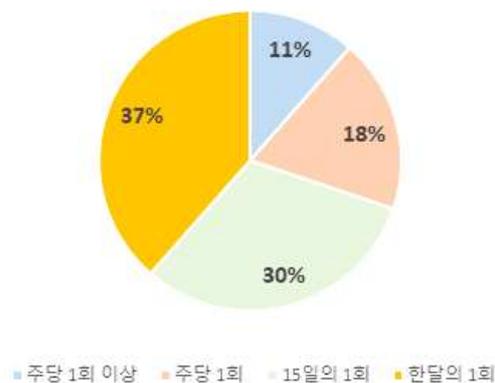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판매량(천톤)	131.6	125.5	134.2	138.9	143.3	150.6
판매액(BRL)	979.6	993.6	1136.8	1247.6	1541.2	1508.7

자료: Euro International monitor

□ 유기농 제품 소비 현황

- 브라질 Organix 협회에서는 브라질 내 4개 지역 9개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905명을 대상으로 유기농 식품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진행
- 응답자의 15%가 최근 1개월 이내에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유기농 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소비빈도는 월 1회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15일당 1회 30%, 주당 1회 18%로 조사됨

표 7.3 유기농 제품 소비빈도



자료: Conselho Brasileiro da Proccoucao Orgnica e Sustentavel

- 유기농 식품 구매 유통 채널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 슈퍼마켓이 64%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통채널로 조사됨. 그 외 전통시장이 26%, 천연제품 상점, 생산자 직거래는 각각 4%, 3%로 미약한 수준
 - 대형마트와 같은 슈퍼마켓 채널을 통한 유기농 식품 구매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
 -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 및 생산자 직거래와 같은 채널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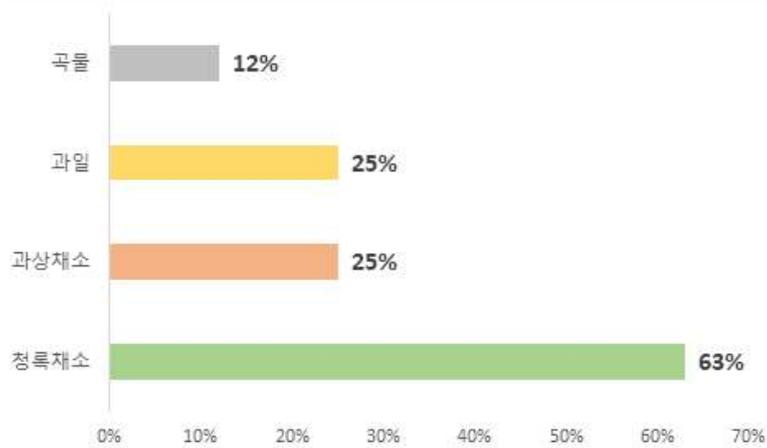
표 7.4 유기농 제품 소비 경로



자료: Conselho Brasileiro da Proccoucao Orgnica e Sustentavel

- 주요 판매 품목 구매비율로는 상추, 양상추, 케일 등과 같은 청록채소 구매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과일, 과상채소가 각각 25%로 나타남
 - 세부품목으로는 상추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토마토가 21%로 조사됨
 - 과일품목 중에는 바나나(7%), 사과(7%) 등이 주요 품목으로 조사됨

표 7.5 주요 품목별 유기농 제품 구매비율(복수응답 가능)



자료: Conselho Brasileiro da Procucao Orgnica e Sustentavel

2. 유기농 제품 인증

- o 2011년 1월 유기농식품 시장에 대한 ‘Lei de Organicos’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
 - 브라질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기농 식품에 ‘Organico Brasil’이란 국가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 함유된 유기농 성분이 95% 미만인 경우 유기농 식품 표시 대신 ‘유기농 성분을 지닌 식품’으로 표시해야 함¹⁴⁾

그림 7.1 브라질 유기농 상품 인증 마크



14) 단, 이 경우 유기농 성분이 적어도 70%이상 함유되어야 함

3. 유기농 제품 유통채널

□ 오프라인

구분	업체명	업체로고	조사결과
대형마트	Pao de acu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내 유기농 전용 코너 운영 - 유기농 인증 마크를 동봉한 상품 판매
			
대형마트	Wall-M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내 과일, 식품코너에 유기농 제품 전용 냉장고 비치 (별도 코너를 운영하지는 않음) - 유기농 인증 마크를 동봉한 상품 판매
			
유기농 전문매장	Casa Orgân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시장 형식의 유기농 매장 - 소비자는 유기농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에 구매 금액의 40%를 기부하는 식으로 결제, 기부 금액은 매장 운영비로 쓰임



자료: 브라질 현지 조사원

□ 온라인

구분	업체명	업체로고	조사결과
유기농 전문판매	ORGANO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유기농 판매사이트 중 대규모 - 100% 유기농 인증 제품만 판매 - 홈페이지: www.organomix.com.br
유기농 전문판매	SANTO ORGANI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 배달 전문 사이트 - 배달 물량, 주기 선택 가능 - 홈페이지: http://santoorganico.com.br

자료: 브라질 현지 조사원

4. 시사점

□ 유기농 식품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식품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브라질 역시 유기농 식품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현재까지 브라질 내 유기농 식품 시장은 틈새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룸
 - 소규모 업체에서부터 글로벌 식품 기업까지 전 식품 분야의 기업들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중
- 브라질에서 유기농 식품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유기농 신선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제품시장으로 진입 가능
 - 브라질 시장 내 유기농 제품 인증 등의 준비사항이 필수적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Country Insight Snapshot Brazil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2. 「Brazil: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3. 「Brazil: Abbyak Fresh Deciduous Fruit Report」, USDA, 2016.10.21.
4. 「Brazil: Exporter Guide」, USDA, 2018.8.1.
5.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www.fao.org), 2017.
6. 「Dietary Guidelines For the Brazilian Population」, Ministry of Health of Brazil, 2017.
7. 「The Food Industry in Brazil: Investment & Trade market survey」, Vlaanderem, 2017.2.
8. 「Consumo de produtos organicos no Brasil」, Organisa, 2017.
9. 「Fresh Food in Brazil」,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3.
10. 「Weight Management and Wellbeing in Brazil」,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10.
11. 「201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fice of the U.S.A, 2018.3.
12. 「2017-2021 중기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2017.4.27.
13.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브라질(개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16.
14.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브라질(개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16.
15.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11.30.
16.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17.6

■ 참고 사이트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2.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3.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4.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1804-02

품목: 신선 배(Fresh pear)

국가: 브라질(Brazil)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2018
발행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2-6300-1119 <http://www.kati.net>
자료문의 aT수출정보부
02-6300-1119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